

■ <요약> 21세기 성장 유망 지역

- (국가간 경제·정치적 격차 축소) 향후 20년 동안 글로벌화의 진전 등으로 아시아를 포함한 개도국의 경제 성장세가 회복되어 선진국과의 격차가 축소될 전망이다
 - 80, 90년대에 이어 향후 20년 동안에도 교역 및 자본 이동 증대, 관세·비관세 장벽 약화, 다국적 기업 확산, 기술 발전에 힘입어 글로벌화가 가속화
 - 아시아와 남미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·기술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성 및 경제 성장 속도가 빠라짐

- (아시아 경제는 위기 극복후 세계 경제 성장 주도) 외환위기 이후 단기 성장 전망은 불투명.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원만히 시행되어 현재 위기에서 벗어난다면 고성장 가능
 - 투자 및 소비 부진, 그리고 대외 환경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2000년부터 위기에서 탈출, 연평균 5~7%대의 빠른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
 - 역내 교역도 급속히 증가하고 홍콩, 한국, 대만 등은 중요한 자금 공급원으로서 역내 교역 확대를 촉진
 - 미래 성장 지속의 관건은 금융 부문의 안정성 확보. 특히 지속 성장에 필수적인 해외 자본의 유입을 위해서도 금융 부문에 대한 적절한 감시 체제와 함께 투명성 보장 규범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

이 글은 WEFA, *World Economic Outlook, 20-Year Extention*, Mar. 99 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한 것으로 21세기 세계 경제의 변화의 주요 흐름과 권역별 성장 가능성을 조망해 보았음

□ 국가간 경제·정치적 격차 축소

- 80, 90년대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 시장, 민주주의 제도 및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귀결되는 다양한 경제·정치적 변화를 경험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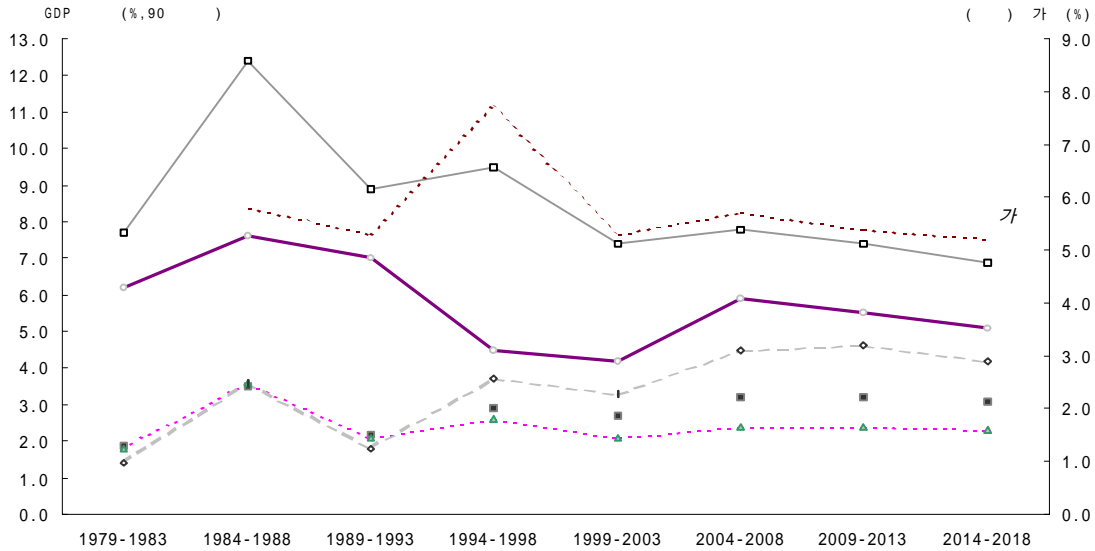
- 유럽: 유럽 연합의 무역 블록에서 유로화 도입을 통해 단일 통화 체제로 변모
- 북미: NAFTA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가동
- 舊공산권: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자유시장경제로 이전중임
- 아시아: 수출 주도의 '情實'자본주의에서 좀 더 민주적인 자유시장 체제로 발전
- 아프리카·중동: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정책이 확산

- 이러한 변화는 향후 20년 동안 글로벌화, 정치경제적 수렴, 인구증가율 둔화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또다른 변화의 시대로 연결

- 글로벌화 가속화: 무역 동맹의 증가와 교역 규모 증대, 관세·비관세 장벽 약화, 국제 자본 이동의 증대, 다국적 기업 확산 등은 글로벌화를 시현하는 한편, 기술의 발전은 글로벌화를 가속화
-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전세계 국가들의 경제 체제 수렴 가속화: 선진국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, 남미나 아시아 등지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·기술 유입 확대에 따라 생산성 및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져 소득 편차가 축소. 향후 20년 동안 남미의 연평균 실질GDP성장률은 4.2%,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는 5.8%(한국 5.3%), 반면 유럽은 2.4%, 미국은 2.2%, 일본은 1.9%로 전망됨
- 통화·재정 정책,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정치 체제도 동일화: 금융시장 세계화의 결과, 물가상승률 제어를 목표로 하는 독립적인 중앙은행 설립이 확산되고 재정 적자 비율의 축소를 지향하는 재정 정책을 채택
-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심화: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정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 한

편 노동 공급도 인구 증가율 둔화에 따라 다소 축소되면서 임금 상승을 초래. 그 결과 기업들의 자본 투입율이 증대, 노동의 단위당 생산성도 증대

<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>



주 : 동남아는 ENIEs + NIEs, 남미는 멕시코 제외

□ 아시아 경제, 위기 극복 후 세계 경제 성장 주도

- 금융 부문의 취약성으로 97년 이후 위기 국면에 봉착했던 아시아 경제는 현재 위기 탈출의 조짐을 보임

- 지난 70~95년의 기간 동안 아시아 경제는 수출의 급속 성장, 높은 국내 저축과 투자, 안정적인 실질 환율, 인적 자본에 대한 적절한 투자, 그리고 성장 이익의 분배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¹⁾
- 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·금융위기 확산으로 98년 한해 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으나, 최근 경상수지 개선이나 통화 가치 안정, 자산 가격 상승 및 물가 상승률 안정화 등 위기 탈출의 조짐이 나타남

- 아시아 경제는 원만한 구조조정 이후 다시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

- 아직도 투자 및 소비 부진, 그리고 대외 환경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2000년부터 위기에서 탈출, 빠른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

1) 1인당 실질국민소득 지표로 살펴 보면, 70~95년의 기간 동안 한국 5.5배, 싱가포르 5배, 홍콩 3.9배, 태국 3.8배, 말레이시아 3배, 인도네시아 2.9배 증가

- 특히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한국과 태국은 구조조정 진행과 더불어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. 가장 취약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더디게 회복
- 2001~2010년 동안 중국, 인도 등 저소득 국가들이 연평균 7.4%대의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태국과 같은 새로운 신흥공업국(ENIEs: Emerging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)이 6.0%, 그리고 한국, 홍콩, 싱가포르, 대만 등 NIEs는 5.6%씩 성장
- 2011~2018년 동안에는 저소득 국가들은 연평균 7.6%, ENIEs가 6.4%, NIEs는 5.7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
- 한편 역내 교역도 급속히 증가하고 홍콩, 한국, 대만 등 선두 국가들은 중요한 자금 공급원으로서 역내 교역 확대를 촉진. 물론 무역 자유화의 진전으로 수입장벽도 약화

- 국가별 발전 양태

- **싱가폴·홍콩**: 국내 임금 상승과 역내 저비용 생산자와 경쟁 격화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중심이 이동. 홍콩은 금융, 경영 및 커뮤니케이션 센타로 부상하는 한편, 싱가폴은 동남아와 중국 등지의 인프라 개발을 담당
- **한국·대만**: 하이테크 및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이 지속되는 한편, 생산성 향상과 수출 시장 다변화로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지속
- **말레이시아·태국·인도네시아·필리핀**: 현재 수출 품목에서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.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저임금 노동 공급 확대를 통해 이에 대응
- **중국·인도**: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재에 대한 세계 수요를 충족. 또한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재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베트남, 파키스탄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이 빠르게 형성

- 미래 성장 지속의 관건은 금융 부문의 안정성 확보

-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극복은 투자 촉진을 통한 단기적인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임
- 특히 지속 성장에 필수적인 해외 자본의 유입을 위해서도 금융 부문에 대한 적절한 감시 체제와 함께 투명성 보장 규범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

■ 박병철 주임연구원 bcpark@hri.co.kr ☎724-4048